

한국언어정보학회

Korean Society for Language and Information

소 식 제 20 호 (1999년 5월)

KSLI Newsletter No 20, 1999

발행인: 최재웅

편집인: 김종복

발행처: 한국언어정보학회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영어영문학과내

전화: 02-961-0892/0211 전송: 02-959-9018

E-mail: jongbok@nms.kyunghee.ac.kr, URL: http://society.kordic.re.kr/~ksli/

㉠ [언어정보] 원고 모집 및 2학기 연구 발표 논문 모집

올해 8월초에 발간할 예정인 [언어와 정보] 제 3권 제 1호에 실을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이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집위원장인 노용균선생님의 투고 부탁의 글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언어와 정보" 제3권 제1호는 금년 8월 31일에 간행 될 예정입니다. 4월 22일 현재 출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고 된 논문의 수는 한 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통 길이의 논문이 여섯 편 정도 되어야 현실적으로 간행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투고된 논문의 편수는 다소 우려가 됩니다.

"언어와 정보"는 우리 학회의 회원들이 서로, 그리고 바깥 세계와 의사 소통을 하는 주요 수단임에 틀림 없습니다. 지난 2년간 이 현우 선생님과 여러 회원 저자들께서 바닥 다지기를 잘 해 놓은 덕분에 제3권도 우수한 논문들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금년 가을에는 학술 진흥재단의 학술지 인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현집행부의 주요 사업 목표 중 하나로 천명된 바도 있습니다. (소식지 3월호 참조) 근자에 전국의 각 대학에서는 교수 연구 업적 평가의 잣대를 정의하려고 부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학술진흥재단의 인증은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점에 "언어와 정보"에 선생님의 귀중한 논문을 투고하시는 일이 곧 "언어와 정보"의 권위를 높이는 일이 되고 결국에는 ("언어와 정보"가 인증 받음으로써) 선생님께도 작으나마 실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디 투고하셔서 학술지 "언어와 정보"의 존재 이유를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 우리 학회의 활력 증대에 이바지 하시기를 간청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참고로

제3권 제1호에의 출판 고려를 위해서는 늦어도 5월 31일까지 투고해 주셔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그 전에, 아니면 지금 당장에라도 투고하시면 그 만큼 일찍 심사위원들의 자상한 평을 받아 보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논문의 포맷은 심사 후에 제시될 것입니다. 한국어학회 "언어"의 스타일 시트를 따르시면 무난합니다.

논문 보내실 곳: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 220 충남대학교
언어학과

또는 e-mail ynoling@hanbat.chungnam.ac.kr

기한: 1999년 5월 31일 (월요일)

포맷: LaTeX 또는 아리아 한글 또는 MS Word

스타일 시트: 한국 언어학회 "언어"의 스타일 시트 (6월말 확정)

선생님의 연구에 진전과 결실이 있기를 바라면서...

노 용균 드림

한국 언어정보 학회 편집위원장

㉔ 구구조문법연구회

지난 5월 1일 구구조문법 두 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서울대 유은정 선생님께서 강독을 해주셨고 토론은 경희대 박병수 교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㉕ 학회 홈페이지 구축 및 수정 작업

언어정보학회 홈페이지가 <http://society.kordic.re.kr/~ksli>에 새로 단장되었습니다. 특히 게시판과 토론방을 개설하여 회원들 사이의 활발한 의견 교환 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홈페이지에 대한 주저없는 질책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㉖ 국내외 언어학 동향

편집자 주: 지난번에 이번호에는 국내외 학술 동향은 최승권 선생님의 글을 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동번역 기술 동향 - 언어학적 관점에서 -

최승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동번역(Machine Translation)은 컴퓨터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것을 말한다. 자동번역이 시작된 것이 1950년대부터이니 벌써 5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자동번역의 번역품질은 사람의 번역과 비교해볼 때 매우 낮으며 사람의 번역품질을 따라 잡기에는 아직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대량의 문서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종류의 언어현상에 대한 처리라든가 구조적 모호성에 대한 해결 및 사전에 미등록되어 있는 단어들의 처리가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번역품질의 향상을 위해 1978년부터

1998년까지 자동번역 기술은 크게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표1】 지난 20년간의 자동번역 방법론의 변화

	1978 - 1988	1989 - 1998
규칙기반 자동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사론 지향적 ▷ 계층적 구조 변형 지향 ▷ 분석/변환 지향 ▷ 이해와 모호성 해결 지향 ▷ 단방향 지향 ▷ 언어학적 정보 이용 ▷ 사전 컴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 지향적 ▷ 단층적 제약/통합 지향 ▷ 생성 지향 ▷ 스타일/품질 지향 ▷ 양방향 지향 ▷ 어휘 개념적 데이터 뱅크 ▷ 사전 획득
말뭉치기반 자동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적 기반 (말뭉치의 직/간접 사용, Alignment의 사용) ▷ 대역 말뭉치를 사용한 예제기반 자동번역
기타 자동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통역 (British Telecom, ATR, C-STAR, Verbmobil) ▷ Controlled input MT system (Systran, Carnegie-Mellon for Caterpillar) ▷ Domain-specific and sublanguage MT (Pangloss, Carnegie-Mellon for Caterpillar, ATR speech translation, Verbmobil) ▷ User-specific and custom-built MT systems (Winger, TRADEX)

규칙기반 자동번역은 다분히 언어학규칙에 기반을 둔 자동번역 방법을 말하며 말뭉치기반 자동번역은 다분히 통계 및 데이터에 기반을 둔 자동번역 방법을 말한다. 기타 자동번역은 음성과 자동번역을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동번역을 말한다. 규칙기반 자동번역을 살펴볼 때 최근 10년간은 LFG, HPSG와 같은 통합문법(Unification grammar)의 발전과 맥락을 같이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Internet의 빠른 보급으로 자동번역 방법론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왜냐하면 웹문서에 등장하는 언어현상들이 정형문장 뿐 아니라 비정형 문장을 다수 포함하거나 문어체 뿐만 아니라 대화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어현상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난 20년간의 자동번역 방법의 변화를 토대로 향후 10년간의 자동번역 방법의 변화를 예측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표2】 향후 10년간의 자동번역 방법론의 변화 예측

	1999 - 2009
번역방식	규칙기반(형태소분석 및 통사적분석)과 통계기반/예제기반(domain-oriented의미분석)이 혼합되며 대화와 스타일이 강조된 자동번역
사용환경	워드프로세서, 출판시스템, 통신기기와의 통합
개발방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국어 문서 요약 자동번역(빠르고 낮은품질에서 빠르고 높은품질로의 변화) 2. Monolingual 사용자용 자동번역(표준화된 문서에서 임의의 문서로의 대상 확장) 3. 자동통역 (제한된 영역에서 무제한 영역으로의 확장) 4. 통신기기 관련 온라인 자동번역(email에서 광고,토론으로의 발전) 5. 전문번역가 지원도구 개발(전자사전, 전문용어사전, 다국어워드프로세싱)
지식베이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순의미자질, 대용량의 어휘공기정보, 모국어 어휘빈도정보가 담긴 번역사전 2. Aligned Bilingual Text Bank 3. Domain-specific Knowledge Bank 4. Terminological Data Bank

Hutchins(1994)는 자동번역의 번역품질의 문제는 전산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언어학적인 문제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아무리 어려운 언어현상이라도 자동번역에서는 피해갈 수 없고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에 언어학자들의 언어간 언어현상 차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더욱더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 J. Hutchins (1994) Research methods and system designs in machine translation a ten-year review, 1984-1994. In *Machine Translation Ten Years On*. Cranfield University.
- J. Mason and A.Rinsche (1995) Ovum Evaluates Translation Technology Products. Ovum Ltd.
- A Japanese View of Machine Translation in light of the Considerations and Recommendations Reported by ALPAC, U.S.A. 시스템공학연구소 (1998) 1998년도 기계번역 연구실 연구 백서.

☐ 회원소식

고려대 언어과학과 이기용 교수님께서 [전산형태론](고려대 출판부)을 펴내셨습니다. 정가는 10,000이지만 학회에서는 7,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교수님께서 이 판매 대금을 저희 학회 운영비로 기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회원주소록 정정 및 주소록 배포 계획

새로운 주소록을 작성하여 6월중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주소 (email 및 homepage 주소)에 첨가 사항이나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leri@nms.kyunghee.ac.kr이나 전화 961-0211로 연락주십시오.

☐ 회원 가입 및 학회비 납부 안내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총무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당 학회비는 일반회원이 15,000원이며 학생회원은 3,000원입니다. 학회비는 발표회 모임에서 직접 내시든지 은행 계좌로 간사에게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유은정, 계좌번호: 012336-0069810, 경희대 서울 우체국)

☐ 5월 15일 발표자 논문 초록

형용사의 논항 구조

박병수 (경희대)

“그 사람은 옷이 더럽다” 혹은 “그 사람은 순이가 싫었다”와 같은 중주격 구문 또는 주제/초점 구문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는 “더럽다, 깨끗하다, 싫다, 좋다” 등의 형용사의 논항 구조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선결 과제이다. 형용사에 의존하는 모든 요소들을 논항으로 보는 HPSG적 논항 구조를 근간으로 하되 순수 의미론적 논항 구조에 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려 한다. 가령 (1)옷이 더럽다. (2)그 사람이 옷이 더럽다. 이 두 가지 예에서 (1)도 완전한 문장이고 (2)도 완전한 문장이라고 보면 앞의 (1)의 “더럽다”와 (2)의

“더럽다”는 논항 구조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2)가 완전한 문장이고 (1)은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고 보면 동일한 논항의 구조의 “다르다” 하나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더럽다”가 2항 술어라고 볼 수는 없으나, (2)만이 완전한 문장이라고 본다면 2항 술어가 아닌 형용사가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한다고 하는 모순된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싫다, 좋다”와 같은 형용사는 2항 술어라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 이 경우 왜 보통 2항 술어의 제2 논항이 주격 명사로 실현되는가를 설명해야 하고 왜 그에 해당하는 피동태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밝히면 이 2항 술어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형용사의 논항 구조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기에는 미진한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Disjunction and Choice Function

윤재학 (경희대)

본 발표는 예문 (1)-(2)에서 관찰되는 영어 “or”와 한국어 “-이나”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이 차이점을 포착할 “-이나”의 진리조건적 정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덧붙여서, 이 정의를 이용하여 (3)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1) a. #My father liked fishing or hunting.
b. 아버지는 낚시나 사냥을 좋아하셨다. (He liked both fishing and hunting)
- (2) a. #I have apples or pears.
b. 오징어나 호도과자 있어요. (I have both 오징어 and 호도과자)
- (3) a. 맥주나 마시겠어요. (beer 'not as the first choice')
b. 몇 사람이나 오셨어요? ('approximately' how many people)
c. 맥주를 열 병이나 마셨어요. ('more than expected')
d.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some/any'+나 --> just anybody)

결론적으로, 이기동(Lee 1993)의 주장을 (즉 (3)에 나타난 ‘-이나’의 다양한 의미들은 ‘second-best 집합’을 염두에 둔 대조의 전체에서 발생된다는 주장) 발전시켜 ‘X-이나’의 구절에서 ‘이나’는 Choice Function을 도입하는 기능을 하며 이 function의 값이 X라고 가정할 때 (1)-(3)의 여러 사실들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

한국언어정보학회

<1999학년도 제1학기 연구 발표 계획>

장소: 대우재단 빌딩 (서울역 앞 대우 빌딩 뒤) 세미나실

날 짜	시 간	발표자	발 표 및 강 독	사 회
3월 20일 (토)	9:30-10:40	이정민(서울대), 남승호(서울대), 강범모(고려대)	Underspecification for Polysemous Predicates in Korean	김종복
	휴식(10분)			
	10:50-11:30	이민행 (연세대)	강독: Bayer, Samuel et al. 1998.	김종복
11:30-12:10	이예식 (경북대)	Scalar Implicature in Dynamic Semantics		
4월 17일 (토)	9:30-10:10	윤영은 (이화여대)	PS and FC: 'amurato' and 'amuna'	노용균
	10:10-10:50	홍기선 (서울대)	논항의 판별기준	
	휴식(10분)			
	11:00-11:40	정소우 (성신여대)	종속절 시제 해석 규칙	노용균
11:40-12:20	김종복 (경희대)	Getting the <i>Do</i> -support Effect without <i>Do</i> -support		
5월 15일 (토)	9:30-10:40	이민행		채희락
	휴식(10분)			
	10:50-11:30	박병수 (경희대)	Argument Structure of Korean Adjectives	채희락
11:30-12:10	윤재학 (경희대)	Disjunction and Choice Function		
6월 12일 (토)	9:30-10:40	장석진 (서울대)	Where Grammar Meets Pragmatics: A Constraint-based Approach to Discourse	이민행
	휴식(10분)			
	10:50-11:30	채희락 (한국외대)	TBA	이민행
11:30-12:10	문승철 (항공대)	TBA		

(OHP가 필요하신 발표자께서는 미리 총무에게 연락해주시시오.)

한국언어정보학회 구구조문법연구회

<1999학년도 제1학기 강독 계획>

장소: 대우재단 빌딩 (서울역 앞 대우 빌딩 뒤) 세미나실

- ◆ 강독주제 : Syntax & Morphology Interfaces
- ◆ 강독교재 : Koenig, Jean-Pierre. 1999. *Lexical Relations*. Stanford: CSLI Publications.

(OHP가 필요하신 발표자께서는 미리 총무에게 연락해주시오.)

날 짜	시 간	발 표 자	강 독 내 용	토 론 자
4월 3일 (토)	10:00-12:00	김 종 복 (경희대)	Introduction & Two Kinds of Lexical Relations (Ch.1&2)	
5월 1일 (토)	10:00-12:00	유 은 정 (서울대)	On-line Type Construction (Ch. 3)	박 병 수 (경희대)
5월 29일 (토)	10:00-12:00	이 민 행 (연세대)	A typed constituent structure-based morphology (Ch. 4)	정 찬 (동서대)
6월 26일 (토)	10:00-12:00	채 희 락 (한국외대)	The AND/OR nature of morphological processes (Ch. 5)	조 세 연 (호남대)